

“해탈 상징 ‘불교지화’ 전통 살리자”

紙花

천태종 종단 차원 한국전통지화 주제 학술대회 개최 스님들 “종교의미 각별”, 학자 “전통보존” 한 목소리

불교지화는 생화를 대체품을 넣어 해탈과 깨달음을 표현한 종교적 가치가 높은 불교문화유산입니다. 지화 전통을 살리기 위한 불교계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라져가는 한국전통 중 하나인 불교지화를 보존하기 위한 학술대회가 열렸다.

천태종(총무원장 도정)은 1월 7일 단양 구인사 광명당에서 ‘2014 한국전통지화 학술대회’를 열고 지화의 의미를 조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천태종 감사위원장 춘광 스님은 기조연설을 통해 “지화는 생화의 대체품이라는 한정을 초월해 그 종교적 의미가 매우 각별하다”며 “일체 중생의 해탈을 염원하는 불교전통에서 지화는 해탈을 염원하는 마음과 깨달음을 가장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불경 속에 깨달음을 상징하는 꽃의 예로 불교지화 전승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스님은 “〈불설아미타경〉의 ‘극락세계

의 공덕장엄’ 부분을 보면 부처님이 사리불에게 극락세계를 설명하면서 그 세계를 보배, 꽃, 음악의 세계라고 소개하고 있다. 〈화엄경〉에서도 깨닫고 보니 이 세상 그대로가 화엄의 세상, 꽃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묘법연화경〉 역시 연꽃의 상징성을 드러내고 있다. 또 〈유마경〉에서 유마거사가 진제와 속제의 분별을 초월해 불이(不二)의 경지를 드러내는 장면에서 꽃비가 내리는 것으로 묘사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통지화보존회장 석용 스님(송탄 송덕사 주지)은 ‘전통지화 제작 기법에 대한 소고’ 주제발제에서 “지화 제작에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기술 개발로 생화 재배가 쉬워지며 우리 전통인 지화문화의 맥이 끊어질 위기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천태종 교무부장 경혜 스님은 “지화는 지금까지 생화가 하지 못하는 역할을 했다”며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내는 지화에



천태종이 1월 7일 단양 구인사 광명당에서 개최한 전통지화 학술대회에는 700여 대중이 모여 불교지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대해 불교계가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명희 홍익대 문화인류학 강사는 ‘문화인류학에서 본 불교 지화’ 발제에서 “지화 자체에는 상징성이 없지만 지화의 용도와 쓰임에 따라 상징성이 부여된다”며 “특히 종교에서 사용된 지화는 신성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운동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 지화의 차용과 전용’에서 굿 등 한국전통 곳곳에 지화문화가 자리하고 있음을 들고 보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총무원장 도정 스님은 “전통지화가 종교 범주를 넘어 일상 생활예술로 영역을 확산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이번 지화학술대회를 통해 지화예술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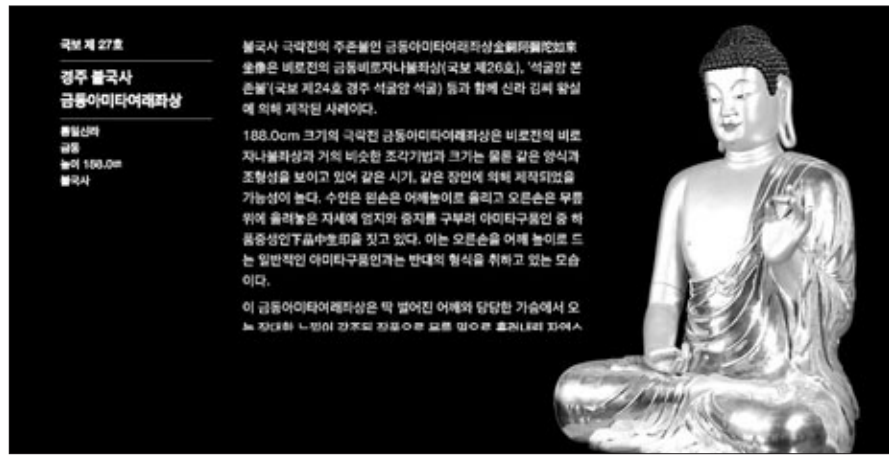
도정 스님은 “전통지화가 종교 범주를 넘어 일상 생활예술로 영역을 확산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이번 지화학술대회를 통해 지화예술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도정 스님은 “전통지화가 종교 범주를 넘어 일상 생활예술로 영역을 확산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다”며 “이번 지화학술대회를 통해 지화예술이 발전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이제 성보문화재도 스마트폰으로 본다

문화재청, 문화재 ‘문화재대관 국보 앱’ 서비스



‘문화재대관 국보 앱’ 중 국보 조각 앱의 국보 제27호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내용.

부석사 무량수전, 석굴암 삼존불상 등 국보급 성보문화재를 이제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로 볼 수 있다.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국보 문화재 229건에 대한 콘텐츠를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에서 볼 수 있는 ‘문화재대관 국보 앱(Application)’을 구축하고 서비스를 시작했다.

‘문화재대관 국보 앱’은 문화재청이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발간한 책자(문화재대관 국보편)의 내용을 기반한 것으로 회화, 조각, 도자기, 금속공예, 전적, 기타 등 총 6개 분야로 나눠 구성됐다. ‘문화재대관 국보 앱’에서는 고화질 사

지자료를 비롯해 동영상, 소리 자료를 통해 생생한 문화재의 모습을 느낄 수 있다.

예를 들어 ‘국보 제46호 부석사 조사당 벽화’의 경우 동영상을 통해 부석사 조사당의 전경과 벽화의 모습이 나오며 음성과 글을 통해 상세한 설명이 함께 나온다.

일부 문화재의 경우 동영상 서비스가 지원돼 주변 환경 등도 함께 볼 수 있다.

‘문화재대관 국보 앱’은 모바일 앱스토어(애플의 App Store, 구글의 Play Store)에서 무료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전자책 출판 앱인 ‘문화유산 서재’와 연동해 운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덕현 기자

남양주 수중사 일대 명승 지정 예고

두물머리 및 운길산 일대 포함해 경관 가치 인정



운길산에서 내려다 보는 수중사와 두물머리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송촌리에 위치한 ‘남양주 운길산 수중사 일원(南陽州 雲吉山 水鍾寺 一圓)’을 국가지정문화재인 명승으로 지정 예고했다.

수중사 일대는 북한강과 남한강이 합류하는 두물머리 하천경관이 펼쳐지며 운길산 정상에서는 한강은 물론 서울 북동쪽 지역의 산지경관을 조망할 수 있다.

특히 두물머리는 금강산의 정기를 받은 북한강과 강원도 금대봉 검룡소(檢龍沼, 명승 제73호)에서 발원한 남한강의 정기가 합쳐지는 장소로 사계절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 아름답다. 노덕현 기자

이 일원은 계절에 따라 신록·녹음·단풍·설경을 감상할 수 있으며, 시간과 날씨에 따라 일출·일몰·운무 등 아름다운 풍광을 볼 수 있는 경관가치가 큰 곳이다.

조선 초기 학자 서거정(徐居正, 1420~1488)은 수중사를 ‘동방에서 제일의 전망을 가진 사찰’이라 하였으며, 다선(茶仙)으로 일컬어지는 초의선사(草衣禪師, 1786~1866)가 정약용을 찾아와 한강의 아름다운 풍광을 즐기며 차를 마신 장소로서 차 문화와도 깊은 인연이 있는 곳이다.

명승 지정은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진행된다. 노덕현 기자

불교학술지, 새해맞아 원고 대거 모집

〈불교학연구〉〈동아시아불교문화〉〈한국선학〉 접수

2014년 새해를 맞아 불교학술지들이 대거 게재 논문을 모집한다.

불교학연구회(학회장 조은수)는 1월 31일까지 〈불교학연구〉제38호 게재논문 원고를 모집한다. 〈불교학연구〉제38호는 3월 31일 발간된다. 투고 페이지 수는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20매까지로 200매 초과 시 게재가 불가능하다. 투고 메일주소는 bulgyohak@hanmail.net이다. 〈불교학연구〉는 년 4회 발간되고 있다. (02)2260-3129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학회장 조수동)는 2월 15일까지 〈동아시아불교문화〉제 17집 논문 원고를 모집한다. 〈동아시아불교문화〉제 17집은 3월 31일 발간된다. 〈동아시아불교문화〉는 2013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한 학술지 평가에서 등재지로 승격된 바 있다. 접수 메일주소는 eastbuddha@hanmail.net로 심사료는

3만원이다. 논문투고 분량은 〈동아시아불교문화〉 편집 기준 25쪽 이내다. 심사 기준, 투고요령, 논문작성요령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학회 홈페이지(www.easternasia.kr)의 ‘동아시아불교문화발행 투고 규정, 심사규정, 편집규정’을 참조하면 된다. (051)581-6320

한국선학회(회장 이덕진)는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한국선학〉제36호에 게재 논문을 모집한다. 원고마감일은 2월 28일 까지로 발간일은 4월 30일이다. 모집분야는 선불교 관련 수행, 사상, 역사, 문학, 어학 등 전반으로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하다. 투고요령은 학회홈페이지(www.seonstudy.org)의 논문투고 안내를 참조하면 된다. 한국선학회 이메일(seonstudy@naver.com)을 통해 접수 가능하며 회비와 심사료 납부 이후 심사 가능하다. 노덕현 기자

불교시대사, 학술지 ‘백송총서’ 발간 예정

학술서 발간이 수의 회향 차원이라는 말이 도는 출판계 상황에서 불교계 출판사가 학술총서 시리즈를 펴내기 해 눈길을 끈다. 불교시대사(대표 이규만)는 올해부터 학술총서 시리즈 ‘백송총서’를 발간한다.

이규만 대표는 “불교학자들도 학술서를 낼 곳이 줄었고 불교를 공부하는 분들도 학술서가 많지 않으니 공부에 지장이

많다”며 “우리 불교학계와 불자들에게 꼭 필요한 학술서를 펴내겠다”고 말했다.

‘백송총서’ 시리즈 첫 권은 김미숙 동국대 겸임교수의 ‘자이나 수행론’으로 700부 가량 펴낼 예정이다. 불교시대사는 불교학을 중심으로 한국학·인도학 등 인접 학문 연구서도 포함해 매년 4~5권의 학술서를 낼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히스입자와 불교 세계관’ 열린논단

〈불교평론〉은 1월 16일 오후 6시 30분 신사동 세미나실에서 ‘열린논단’ 새해 첫 자리를 마련한다. 이날 열린논단에서는 양형진 고려대 물리학과 교수가 ‘히스입자의 발견과 불교의 세계관’을 주제로 강연한다.

양형진 교수는 물리학자로서 불교와 과학의 접점을 연구하고 있다. 〈불교평론〉측은 ‘히스입자의 발견은 과학적 성과 못

지않게 종교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기독교와 같은 유신종교는 우주 주가 신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창조론을 주장해왔고 무신론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는 모든 존재는 영구불변하는 본질이 없다는 무아론을 주장해 왔다. 이 주장들을 히스 이론과 대비해보면 어떤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지가 매우 흥미진진한 주제라 될 것”이라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제5회 원효학술상 후보 공모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철)은 2월 28일까지 제5회 원효학술상 후보를 공모한다.

공모 주제는 △불교사상의 현대적 조명과 한국철학의 세계화를 위한 불교사상 연구 부문 △서양사상의 관점에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서양사상 연구 부문 △동양사상의 관점에서

서 본 불교사상 연구 및 불교사상의 관점에서 본 동양사상 연구 부문에서 자유로이 선택해 1인 1편을 응모하면 된다.

상금은 저술상 1000만원, 논문상 700만원이며 비전임교수는 차등지급된다. 지원서 양식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02)719-2606 노덕현 기자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 85기 佛敎儀式(범음·범패)學人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과정(야간 및 통선생)

기본과정(37월)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범고) 다루는법, 도량석, 쇠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37월)	상주권공, 대령관육,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1년)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1년)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원서접수 : 2014년 1월 모집중

◆개강일시 : 2014년 1월 개강
매주 (화·금) 오후 5시 ~ 6시 30분 (1시간 30분)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종파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중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경 대한민국 중요 무형문화재 50호 축

“태고종 영산재”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등재

전통 범음범패(바라작법) 과정 학인모집

■ 교육과정

(1) 초·중급과정

- ◆ 조석예불 ◆ 사시불공, 각단불공, 시달림
- ◆ 바라춤 : 요잡(막바라), 관육바라, 천수바라
- ◆ 나비춤 : 사방요신, 도량계
- ◆ 49재, 천도의식

(2) 상급과정 - 초·중급 이수자에 한함

- ◆ 사다라니바라, 화의재바라,
- ◆ 신중작법(104위, 39위), 육건이
- ◆ 다계나비춤작법, 운심계작법
- ◆ 가지계

■ 강주스님 : 성우

- ◆ 개강일시 : 2014년 3월 6일 목요일
- ◆ 교육시간 : 초·중급 - 목요일 오전 10시 ~ 1시
- 상급 - 목요일 오후 2시 ~ 6시
- ◆ 수 강 료 : 입학금 10만원 (교재비 포함), 3개월 30만원
- ◆ 제출서류 : 수강신청서 1부 (본 교육원에서 교부), 반명함사진 1매
- ◆ 접수기간 : 상시모집
- ◆ 연락처 : 054)975-4339

■ 접수처 및 강의장소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 (전화접수 가능)

한국불교태고종 대구총무원과 경북총무원이 통합하기에
2014년부터 한곳에서 수업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한국불교태고종 경북교구총무원